

검색의 시대, 사색을 잃다

이상명/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총장

식당에서 음식이 나오면 포크보다 스마트폰을 먼저 드는 풍경은 이제 낯설지 않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요리는 식기 전에 먼저 렌즈에 담긴다. 때로는 접시 위의 실물보다 필터로 보정된 사진 속 음식이 더 먹음직스러워 보인다. 현실보다 이미지가 더 강한 설득력을 갖는 순간, 우리는 프랑스 사회철학자, 미디어 이론가 장 보드리야르가 말한 ‘시뮬라시옹(simulation)’의 세계에 들어선다. 이는 실제보다 더 실제처럼 보이는 이미지가 현실을 대신하는 상태다.

오늘날 우리는 이 시뮬라시옹의 정점에서 살아간다. 인간의 뇌를 본뜬 인공 신경망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며 세상을 재구성한다. 불과 몇 해 전까지 공상과학처럼 보이던 기술이 이제는 손바닥 위의 일상이 되었다. 기술은 삶을 경이롭게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질문을 던진다. “모든 것이 복제되고 생성되는 시대에,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진짜’는 무엇인가?”

디지털 환경은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흐린다.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콘텐츠는 곁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자주 우리의 감각을 점유한다. 정교한 딥페이크와 가짜 정보는 진실을 분별하려는 의지마저 무디게 만든다. 우리는 음식을 즐기기도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 주문하고, 경험보다 기록을 앞세운다. 시뮬라시옹의 세계에서 이미지는 실체를 밀어내고, 검색은 사색을 대체한다. 본질보다 데이터의 그림자가 더 커지는 역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다.

그러나 인간은 단순한 정보 처리 장치가 아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창 1:27) 지음 받은 존재임을 선포한다. 우리가 AI 라는 도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도 이 창조적 본성의 발현이다.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은 단순히 지적 능력을 가리키지 않는다. 그것은 타자와 관계 맺는 능력, 옳고 그름을 묻는 도덕적 감수성, 그리고 ‘왜 사는가’를 붙들고 씨름하는 의미 추구의 본능이다. AI 는 수십억 개의 텍스트를 학습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지만, 단 한 번도 고독을 느끼지 않으며 자신의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용서를 구하지 않고, 타인의 아픔 앞에서 잠

「기독일보」

못 이루지도 않는다. 바로 그 자리, 기계가 끝내 도달하지 못하는 그 자리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이며,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으신 곳이다(창 2:7).

문제는 기술의 ‘업데이트’가 인간의 ‘성숙’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삶의 방향은 흐릿해졌다. 검색창은 수많은 답을 제시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침묵한다. 우리는 정답을 찾는 데는 능숙해졌지만, 진리를 사색하는 능력은 점점 잃어가고 있다.

이 간극을 사도 바울은 이미 통찰하고 있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고전 13:12). 고대 고린도의 거친 청동 거울은 사물의 윤곽만 겨우 비쳤다. 오늘의 알고리즘과 디지털 필터도 다르지 않다.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면서도 정작 인간 내면의 깊이는 반영하지 못한다. 정보가 많아질수록 통찰은 오히려 얕아지는 역설, 그것이 바울이 예고한 ‘희미함’의 현대적 형태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사색으로 돌아가야 한다. 사색은 거창한 철학적 수련이 아니다. 하루 한 번, 알림을 끄고 성경 한 구절 앞에 조용히 머무는 것이다. 스크롤을 멈추고,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며 “나는 지금 무엇을 좇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다. 마주 앉은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나누는 한마디가 수천 개의 ‘좋아요’보다 더 깊은 연결을 만들고, 알고리즘이 건너뛴 느린 독서 한 페이지가 검색창이 끝내 줄 수 없는 방향을 가리킨다. 데이터의 소음이 가라앉을 때, 비로소 우리 안 깊은 곳의 목소리가 들린다.

기술은 계속 진화할 것이다. 그러나 삶의 가치는 데이터의 양이 아니라 진리를 담아내는 깊이로 인해 결정된다. 고전과 성경은 혼돈 속에서도 본질을 가리키는 나침반이다. 검색이 답을 주는 시대일수록, 질문을 스스로 세우는 사람이 더 희귀해지고 더 소중해진다. 픽셀의 환상에 머무르지 않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 때 — 그것이 광장에서 수많은 이미지에 노출되면서도 골방에서 한 분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의 방식일 때 — 우리는 비로소 이 시대를 건너갈 지혜를 얻는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온전한 인간으로 남을 수 있다.